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1일 화요일 음 12월 27일 (4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 낮 최고기온은 9~12℃를 나타내겠고 일교차가 커 도민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20%
0%	성 산	20%
0%	고 산	20%
0%	서귀포	20%

	해뜸 07:37 / 해짐 17:54	달뜸 04:12 / 달짐 14:40
물때	만조 09:00 / 20:22	간조 02:02 / 15:08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8/14℃
모레	흐리고 비	13/14℃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높음

월드뉴스

UAE, 성과 없어도 '인공강우 시도 계속'

가뭄 대처가 궁극적 목표

UAE 기상청의 인공강우 비행기.

아랍에미리트(UAE) 기상청은 비행기로 공중에서 빗방울을 응결하는 '씨앗'을 뿌리는 인공강우를 계속 시도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마르 알야지디 UAE 기상청장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강우포럼에 참석해 "인공강우 기술의 선도자로서 UAE는 관련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며 "전문가들이 더 효율적으로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구름과 더 많은 비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라며 "태양에너지를 이용, 상승기류를 생성해 구름이 생기도록 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온 사막기후로 강수량이 극히 적은 UAE는 1990년대부터 인공강우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UAE 기상청에 따르면 계속된 인공강우 시도에도 2017년 UAE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107㎜였으나 이듬해에는 47㎜로 급감했다. 모두 247차례 인공강우 비행기를 띄운 지난해 평균 강수량은 101㎜였다.

알야지디 청장은 "최근 UAE에 교통 마비와 침수 피해를 낸 폭우 수준의 비는 인공강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 실험은 강수 확률을 30~35% 포인트 올리는 정도이지, UAE에 내리는 모든 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제주문화를 일군 역사인물 김정들(1)

문 영 택
(사)질토래비 이사장

김정이 서귀포와 무슨 인연이 있지? 수소문 끝에 '김정문화회관'을 기증한 김정의 흉상과 소개의 글을 만날 수 있었다. "김정 여사께서는 1921년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부친 김희진 모친 오형직의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13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 하시고, 83세에 서귀포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본 문화회관을 건립, 우리 시에 기증하여 주신 높은 뜻과 숭고한 애향심을 기리고자, 이 흉상을 세우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정 여사의 아들인 김방훈 건립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본회관 건립추진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003. 10. 22. 서귀포시장 강상주".

윗글을 접하기 전후하여 통화한 오광협 전 서귀포시장께서는 20억원을 고향의 문화발전을 위해 내놓고 싶다는 한 재일교포의 제안을 1995년 받았다고 들려주셨다. 그리고 오 전시장과 만난 김정 여사께서는 타국에서 어렵게 번 돈을 문화를 부흥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들려주셨다. 문화는 언문(言文)을 어떻게 가꾸고 다듬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敎化)하느냐에 달려있을 게다. 결국 개인과 집단이 쓰는 말과 글이 곧 우리 문화의 가늠자인 셈이다.

문화라는 밭을 일구는 거름으로는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문화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모양이다. 제주의 역사문화 밭을 경작하는 친환경 퇴비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김정이란 이름들을 떠올려 본다. 노봉(蘆峰) 김정(金政:1670~1737) 목사와 유배인 충암(沖庵) 김정(金淨:1486~1521) 선생이 그 분들이다. 필자는 작년에 그 분들을 찾아 경북과 충남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정 목사가 제주에서 가져간 곰솔씨에서 태생한 소나무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 일행들을 누구보다 반겼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인 김정은 1735년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로 제수돼 헌신적으로 목민관 활동을 전개하셨다.

특히 삼천서당 건립과 화북항 개설은 김정 목사의 위업 중 위업이다. 향교와 서원에서 청금(靑衿) 즉, 특수 가문 출신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 목사는 현, 제주시 건입동에 삼천 서당을 세워 모든 자제들에게 교육의 문호를 개방했다. 뒷날 제주 역사문화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들인 장한철, 오점, 신상흠, 오태직, 안영수, 김양수 등은 삼천서당 출신들이다.

당시의 주 교통항은 관아에서 꽤 먼 조천포였다. 새로운 교통항으로 화북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목사가 등짐으로 돌을 져 날랐다'는 일화를 남긴 김정 목사는 화북포구에서 쓰러져 68세의 생애를 제주에서 마감했다. 김정 목사의 영구와 함께 제주 유생들은 오열하며 경상도 봉황산 오록마을의 깊은 산골까지 따라갔었다. 고인을 기려 삼천서당에 세워졌던 흥학비는 1958년 삼천서당이 헐리면서 오현단 경내로 옮겨졌다. 화북포구 한 켠에는 지금도 노봉 선생의 공적비가 서 있다. 삼사석과 지금은 사라진 칠성대와 달관대 등에 대한 김정 목사의 기록은 역사문화에 대한 그 분의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 하겠다.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열린마당

제주 역사문화유산 해신제로 초대

장 승 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별도봉에서 환해장성에 이르는 해안도로 중간 쯤 위치한 화북포구는 조선시대 제주의 대표적 해상관문으로 포구 안쪽에 들어서면 제주도 기념물 제22호인 해신사와 만난다.

기록에 따르면 순조 20년(1820), 제주목사 한상묵이 화북포구에 해신사를 설립하고 헌종 7년, 제주목사 이원조가 중수하고 헌종 15년, 제주목사 장인식이 이곳에 '해신지위'라고 새긴 돌로 위패를 안치했다. 이후 해신사는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나 선박이 출범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관련 제의가 폐지된 후 화북마을의 어부와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상 무사고와 풍어를 비는 제사로 마을주민들에 의해 운영됐다.

해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해신제를 도제로 봉행해야 한다는 지역민 등과 관계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2017년 말 제주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조례가 공포됐고 일제강점기와 4·3을 거치며 사라졌던 홀기(제례의 순서를 적은 기록)도 복원됐다. 자칫 마을제로 잊혀질 수도 있었던 해신제가 70여년 만에 제주도 유일의 해신제의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2020년 해신제가 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화북포구 해신사에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초헌관으로 제주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아헌관으로 하여 봉행된다. 참여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 스크린이 아름다운 화북포구를 배경으로 해신제의 봉행 모습을 상영하고 이후에는 민속보존회의 풍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화북동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음복으로 떡국을 준비하고 있다.

어렵게 제자리를 찾은 제주도의 해신제가 도민의 무사안녕과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제주의 큰 잔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구좌119센터 소방실습을 마치며

손 현 주
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겨울이 성큼 다가온 12월, 소방 실습이 시작됐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실습 장소는 구좌 119센터였다. 센터에 도착해 반장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긴장한 우리에게 반장님들은 센터의 구조, 역할, 장비의 위치와 기능을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나의 첫 출동 환자는 알레르기 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이 있었다. 환자의 병명을 듣는 순간 걱정되고 무서웠다. 현장에 도착하니 환자는 몸을 긁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같이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반장님은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빠르고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스캔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송 후 의사에게 환자의 병력과 상태를 인계하는 반장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이 외에도 구급대원의 역할은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고,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 또한 구급대원의 업무이자 역할임을 알게 됐다.

구급차 안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다. 학교에선 없는 장비와 수업시간에 본 사진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장비들이 많았지만, 반장님께서 구급차의 장비들의 위치와 기능을 잘 알려주셨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비는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라고 불리는 루카스(LUCAS)였다. 루카스는 심장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심정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장비였다.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구좌 119센터 반장님들의 따뜻한 격려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됐다.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에서 배운 실기를 통합할 수 있었다.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배움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다.